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4차)

1. 일 시 : 2012.01.20(금) 11:00 ~ 15:50
2. 장 소 : 대학본부·경영관 303호
3. 참 석 : 8명(위원장 조승구, 위원 석기준, 위원 최영준, 위원 류동우, 위원 이성민, 위원 신상민, 위원 김진호, 위원 이채연)
4. 불 참 : 0명
5. 회의안건 :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논의

◆ 위원장 조승구

3차 회의에서 이야기한 총학생회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위원 류동우, 이성민

먼저 등록금 인하율은 8%를 요구하며 총학생회 선거공약인 수강신청개선 및 장학마일리지제도 이용 간편화, 사회봉사단 활성화, 스쿨비스 증편 및 시간조정, 교내 위험지역제거(인도확충 및 화단이동로에 인도설치), 총대장학금 인상 및 리더십특강 개설을 요구하며 각 단과대 건물내 학생회실 요청 및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사무실 학생회관으로 이전, 건물 및 시설보수, 운동시설 보수 등 이용지원 해달라고 하다.

◆ 위원장 조승구

인하율 8%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다.

◆ 위원 류동우

부산 시내 대학 평균 인하율이 5%-8%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대학이 등록금이 비싼편이라 생각되지 않지만 8%가 적당한 선이라 생각한다.

◆ 위원 석기준

우리 대학은 2011년에 전국 최초로 등록금을 인하하였고 장학금도 대폭 확대하였으며 2012년도도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등록금인하와 장학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등록금인하가 너무 커면 학교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결국 그 결과는 학생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다.

◆ 위원 조승구

학교 안은

현재 등록금에서 입학금은 동결, 수업료는 2.2%를 인하(학기제, 학점제)하면 2012학년도 대학평균등록금 인하율은 5.0%를 유지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대학은 등록금이 높지 않고 장학금도 많이 주는 대학이다. 작년에 학교가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도 확충한 상황을 고려 해야 하며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중 스쿨비스증편 및 시간조정은 어려운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고 나머지 다른 사항들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말하다.

◆ 위원 이채연

2012학년도 예산편성 진행상황을 보면 재정적부담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에 대한 투자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큰 폭의 인하는 미래에 재정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 위원 류동우

각 단과대별로 등록금인하율 차등적용을 학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다.

◆ 위원 석기준

우리 대학 등록금은 계열별로 적용하고 있고 계열별로 교육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며 이미 2011년도 일부 학과는 계열조정이 되어 등록금 인하율 차등적용시킨 사례가 있다. 다만, 계열별 인하율 차등적용은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볼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연구해 봐야 될 과제라 생각된다.

12시15분에 정회하고 12시25분에 재개함

◆ 위원장 조승구

총학생회 위원들 중 한분이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다.

◆ 위원 이성민

현재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만 집행은 모두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다.

◆ 위원장 최영준

현재 생활보호 장학금이 집행중이며 2월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것이라고 말하다.

◆ 위원 이성민

부산시내 주요대학들중 지금 현재 우리대학이 등록금은 낮지만 모든대학이 인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등록금수준이 중위권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하다.

◆ 위원장 조승구

단지 등록금 인하율만 볼것이 아니라 장학금 확충내용도 함께 봐야한다라고 하다.

◆ 위원 류동우

장학금이 확충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등록금 인하이다 학교측의 2.2% 인하는 안 받아들이 수 없다라고 말하다.

12시45분에 정회하고 12시55분에 재개함

◆ 위원장 조승구

국가장학금을 배정받기 위해 학교자구노력 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합하면 74억이 증가한다. 학교는 자구노력 장학금 증가에 따라 관리운영비 절감등 건축재정으로 학교예산을 운영해야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학생정비는 줄이지 않았다. 학교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 위원 이성민

등록금 2.2 인하(평균등록금 5%)이면 부산시내 주요대학 인하율과 비교해볼때 최저수준 아닌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13시15분에 정회하고 14시10분에 재개함

◆ 위원장 조승구

학교측과 학생측 인하안이 간격이 좁혀졌으면 한다 라고 하다.

◆ 위원 김진호

보다 크게 보고 학교측이든 학생측이든 서로 양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다.

◆ 위원 이성민

부산시내 등록금에 예상인하율을 적용하고 우리학교 등록금을 계산을 해보았다. 역시 중위권으로 올라간다. 동아대,경성대, 외국어대, 신라대 보다 인하율이 낮은것로 조사되었다라고 하다.

◆ 위원 석기준

등록금 인하율도 중요하지만 그 인하규모로 장학금을 확충하려면 3배나 많이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학교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줘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재정지원사업의 각종 지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다.

◆ 위원장 조승구

동아대도 5%대 인하한다지만 작년 대학공시 평균등록금 4.9% 인상이다라고 하고 자료를 보여주다. 표면적인 수치만 볼것이 아니고 장학금 확충등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고 하다.

◆ 위원 이성민

학교 나름대로의 노력부분은 인정하지만 2.2% 인하율은 수용이 어렵다라고 하다

14시55분에 정회하고 15시25분에 재개함

◆ 위원 류동우

2.5% 인하안을 제안한다 라고 하다.

◆ 위원 김진호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학교 재정부담과 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고 볼 때 학교의 재정운영의 큰틀을 유지하기위해 더 이상의 등록금인하가 어렵다면 등록금외의 학생들 요구사항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다.

◆ 위원장 조승구

좋은 의견에 감사드린다 하고 학생들이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가져오면 관련부서장들과 협의하여 합의를 작성하자고 제안하다.

◆ 위원 류동우

그래도 학우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다. 2.2% 인하안은 수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다.

◆ 위원 이성민

2.3%(공시상 평균등록금 5.1%수준) 인하안 제시하다.

◆ 위원장 조승구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안)에 동의하느냐고 위원들에게 묻다.

- ◆ 위원일동
동의하다.

◆ 위원장 조승구

오늘 회의 안건인 2012학년도 등록금책정에서 입학금은 동결하며, 수업료(학기제, 학점제)는 2011년 2학기 등록금대비 2.3% 인하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고, 학생위원들에게는 1월25일 오전에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며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5:50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기획전략처	처장	조승구	조승구
기획전략처	부처장	석기준	석기준
학생지원처	처장	최영준	최영준
총학생회	회장	류동우	류동우
총학생회	부회장	이성민	이성민
총대의원회	의장	신상민	신상민
총동창회	부회장	김진호	김진호
전문위원	세무사	이채연	이채연

전: 김민우